

당시에 사립학교의 대부분은 사립학교 연합 공개 시험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고 있어서 실력은 입증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인천시 사학재단 회장이셨던 문용호 이사장님의 도움을 얻어 선발된 교사 중 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생과 인간적 교감을 나눌 줄 아는 교사를 모셔올 수 있었다.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씩 자리를 잡아가며 개교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배정받는 일이었다.

드디어 교육청에서 학생을 배정하였으나 여태껏 개교 준비하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배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와 비방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의 다른 여고들로 가길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에는 신설 학교인 문일여고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수없이 전화벨이 울렸고 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가 전화를 하시기에 이르렀다.

따르릉~~~

“여보세요”

“여기 교육청입니다. 교감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저희 전화 좀 받아 주세요. 학부모님들이 항의 전화를 하면서 욕을 하시니 교육청 직원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추운 겨울날 외롭게 진행해 왔던 모든 일들이 머릿 속을 스쳐가면서 눈물이 났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각오를 새롭게 했다.

반드시 인천의 명문 여고를 만들어 내리라.....

모두의 우려와 걱정, 비난 속에 점점 개교의 날은 가까워오고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입학식 날이 되었다.

입학생 405명, 학부모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그 와중에도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와 욕설은 이어졌고 모든 교직원(교장과 교감을 포함하여 16명)들은 그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다.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것 외에는 이 치욕을 씻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교직원들은 무섭도록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밤 10시까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질문을 받았고 10시 이후로는 문성여상(지금의 문성정보미 디어고등학교)의 행문관을 빌려 합숙하며 모듈별 학습을 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학생과 하나가 되어 낮과 밤을 함께 하며 기숙학원식 공부를 하게 했다.

모든 과목의 수업시간에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하였고 많은 양의 숙제를 부여했으며 만일 그 숙제를 해 오지 않으면 무거운 채벌(손바닥을 100대씩 때림)을 내리기도 하였다.